

北 “분계선 육로 통행 제한·차단”

군사회담 단장 통지 “남북관계 전면 차단 중대 기로”

북한군은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영철 단장은 12일 남측 군당국에 보낸 전화회담문에서 “위임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 북측의 조선중장통신이 이날 전했다.

북측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괴뢰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위협수위를 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남한 정부에 대해 “현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이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이 아닌 ‘엄격 제한·차단’ 조치라고 밝혔기에 따라 당장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등의 출입이 전면중단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남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치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2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선 “빠리”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북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 및 금강산 지구 내 남북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통신은 북측의 통지문을 소개하면서 남한 정부가 “말로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한 존중과 그 이행을 위한 대화개시에 대해 떠들썩한 실천행동으로는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한 군당국에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선 “빠리”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북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 및 금강산 지구 내 남북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정부 “통행 제한 조치 유감...北 대화 임해야”

정부는 12일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남북간 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국간 대화에 호응할 것을 북에 촉구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이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조치를 실행하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의 후퇴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기 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우리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남북간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하며 그 중에서도 북한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6·15,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며 “이를 위해 조속히 남북당국간 대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전에는 6·15, 10·4 선언 이행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자”고 했었다고 언급, 6·15, 10·4선언에 대해 이날 일부 진전된 입장을 표명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언급한 ‘통행의 엄격한 제한·차단’이 갖는 의미에 대해 “북측의 통보내용을 보면 (남북간 통행의) 전면적인 차단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대만정국 親中-反中 세력 대결 치달나

천수이벤 前 총통 구속...野 “정치 탄압” 반발

천수이벤 전 총통이 12일 결국 구속됨에 따라 향후 대만정국에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12일 아침 검찰이 청구한 천 전 총통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천 전 총통은 대만 역사상 전직 총통으로서 처음으로 구속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러나 천 전 총통과 야당인 민진당은 이를 ‘마잉주(馬英九) 정권의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대만정국이 격랑속으로

로 밀려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천수이벤 전 총통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마잉주 정권에 의한 정치탄압’으로 몰아붙이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대만의 분리독립을 원하는 민진당과 지지자들을 억압하려는 국민당과 마잉주 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천 전 총통이 검찰 청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대만 독립 만세”라고 구호를 외친 것도 자신의 구속을

‘반 중국정서’와 연결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마 전 총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민진당이 마 전 총통의 주장에 동조해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대만 정국은 혼미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진당과 천 전 총통을 지지하는 대만 분리론자들이 장외투쟁에 나서게 되면 대만 정국은 ‘천(靛) 마(靛) 천(靛) 중국(靛) 세력’ 대 ‘천(靛) 마(靛) 천(靛) 반중(靛) 세력’이 ‘강 대 강’으로 대결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합뉴스

부시 ‘FTA-車지원 연계’ 기사움 오바마

펠로시 하원의장 “자동차 지원 입법 즉시 추진”

백악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측 모두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시키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기사움’을 벌

이는 모습이 완연한 가운데 제너럴 모터스(GM)가 현 상황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책”이란 월가의 잇단 진단이 나오는 등 자동차 산업 보호

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이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

백악관의 다나 페리노 대변인은 11일(이하 현지시각) 전날 백악관에서 이뤄진 조지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간 첫 회동과 관련해 자동차 산업 지원과 FTA를 연계시키는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바마측도 이런 식의 ‘거래’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양다리가 절단된 이라크전 참전 재향여군 데이 덕위스가 11일 시카고의 한 재향군인 기념비에 헌화에 앞서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측의 해명은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이 특히 미-콜롬비아 FTA를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과 민간 주당이 추진해온 2차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부시가 오바마에게 제시했다고 보도한 후 나왔다. 의회는 미-콜롬비아 외에 한미 및 미-파나마 FTA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펠리노는 그러나 부시가 오바마에게 “자유 무역의 장점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혀 두 지도자간에 FTA 비준을 둘러싼 의견이 재현됐음을 시사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당초 “두 지도자간의 사적 대화”라는 이유로 오바마가 부시에게 자동차 산업을 긴급 지원토록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미국내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11일 자동차 산업을 시급히 구제하도록 부시를 압박했다. 펠로시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부문을 지원 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17일 개원하는 ‘심겨 후 회기’(레임덕 회기) 때 실현시킨다는 목표라고 측근들이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남녀 불평등 작년보다 더 악화 130개국 중 108위

우리나라의 남녀 간 불평등 상황이 작년에 비해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 경제포럼(WEF)이 11일 발표한 ‘2008 글로벌 성(性)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조사 대상인 130개국 가운데 108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나해에는 조사 대상국 128개국 중 97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교육과 보건, 고용, 정치 등 4개 부문에서 불평등 상황을 계량화한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완전 평등을 1, 완전 불평등을 0으로 볼 때, 작년 0.6409에서 올해 0.6154로 떨어지며 순위도 추락했다.

경제 참여와 기회 항목에서는 110위, 교육 성취 항목에서는 99위, 건강과 생존 항목에서는 107위, 정치 권한 부여 항목에서는 102위를 기록,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1, 2위를 차지했고 스웨덴이 3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世銀, 개도국에 1천억달러 추가 지원

내년 개도국 성장률 6.4%서 4.5%로 하향

세계은행은 11일 국제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3년간 1천억 달러를 더 늘려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도국 지원규모는 내년 6월30일로 끝나는 2008-2009 회계연도의 세계은행 예산 350억달러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직전 회계연도

의 예산은 135억달러였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금융지원 확대는 최빈국들과 대규모 재정적자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해 경제회복과 장기발전에 필요한 장기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졸릭 총재는 G20 금융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국제금융위기 대처방안

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 빈곤문제 등 어려운 사람들의 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장 가난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이번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위기에 대한 대처는 유연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은 내년도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4%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기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절상담
☎ 062)222-8446
H. 010-3666-8446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정안동	154/416	14억3000만	7억9000만	상/오계절	
우산동	727/1431	67억2000만	47억	지정주택(연립·단독)	
무산동	188/193	10억9000만	5억9000만	노년주택	
운암동	146/400	12억7000만	7억1000만	상/다세대	
울봉동	137/223	8억1000만	3억5000만	상/다세대	
안산동	362/893	41억4000만	26억5000만	금융·의료·학원	
문암동	1138/1959	111억1000만	62억2000만	연립	
누운동	40/34	4억9000만	2억4000만	수원초고급·현대리본	
▶근린상가					
소재지	건평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정안동	83	7억5000만	4억2000만	금융·의료·학원	
정안동	7A	5000만	4400만	현대·국립·기술	
우산동	41	2억3000만	1억4000만	현대·국립·기술	
우산동	39	4억3000만	1억	현대·국립·기술	
정안동	32	5억1000만	1억9000만	아파트·국립·기술	
문암동	200	20억3000만	8억9000만	현대·국립·기술	
송정동	2	1억	4400만	광안리·기술	
▶아파트					
소재지	평형	층	면적(㎡)	감평가	최저가
신정동	호반차	15층	34	1억8000만	1억1000만
월계동	천안공호	9층	34	1억1000만	7700만
진월동	중림	4층	28	1억9000만	7350만
봉선동	리안하이츠	7층	22	5500만	3850만
산남동	그린	18층	24	8700만	4690만
대곡동	삼익	8층	32	8000만	5600만
문흥동	중흥	7층	32	9000만	6300만
3당동	리안동산	7층	32	8800만	6880만
금호동	해솔리더	2층	31	9100만	6370만
두암동	그린	18층	33	1억1000만	7700만
▶토지					
소재지	필도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학동	대지	625	7억2000만	5억	금융·의료·학원
월봉동	대지	203	7억3000만	3억3000만	현대·국립·기술
동림동	대지	248	3억8000만	2억5000만	상/다세대
변덕동	전	558	1억1000만	8100만	마곡마을내
죽동	전	591	3억7000만	2억8000만	금융·의료·학원
다시면	전	783	2900만	2900만	다세대·연립
봉현동	담	1058	4500만	3100만	두암마을내
금천동	과수원	2600	9억1000만	8억4000만	금천사우사2호
대곡동	과수원	1362	8200만	4600만	가톨릭마을내
영광동	담	822	2700만	1500만	정안마을내
▶공장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용동	1565/688	23억2200만	16억2520만	동광동·4차선도로	
문수동	634/185	11억5000만	8억5000만	대곡마을내·다세대	
노안동	607/443	5억1400만	2억8800만	월계마을내·다세대	
삼계동	1049/213	2억7210만	1억8050만	상/다세대·4차선도로	
둔동	1248/641	7억770만	4억8540만	문흥마을내·다세대	
▶농가편의시설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곡성동	439/222	9400만	4230만	도시·3차선도로	
문산동	382/226	1억5000만	1억5000만	주변·상/다세대·도로	
문경동	738/410	29억6500만	1억1000만	축사·도로	
무양동	720/283	1억1000만	7720만	우시·주말·4차선도로	
▶농가편의시설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정안동	11.8	8000만	4480만	구영드림빌 4층	
차평동	47.4	3억3000만	1억9480만	로진타워파크 2층	
월산동	13.7	8800만	4820만	동강 8층	
차평동	8.8	5500만	3850만	수림 7층	
수기동	8.1	4300만	2400만	제일 13층	
문흥동	44.9	2억194000만	우동·수원·리본 2층		
산남동	25.8	1억4300만	8000만	그린빌리 4층	
▶속박시설 (모텔)/원룸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곡성동	65/299	4억5000만	2억5000만	5층건물	
누운동	134/400	14억4000만	5억1000만	6층건물	
금남동	36/49	1억1000만	5100만	가업·연립·단독	
송정동	63/299	5억9000만	3억2000만	7층건물	
남평동	832/626	15억4000만	5억5000만	4층건물	
정안동	54/101	2억5000만	1억7000만	금융·의료·학원	
▶농가편의시설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정안동	154/2416	14억3000만	7억9000만	상/오계절	
우산동	727/1431	67억2000만	47억	지정주택(연립·단독)	
무산동	188/193	10억9000만	5억9000만	노년주택	
운암동	146/400	12억7000만	7억1000만	상/다세대	
울봉동	137/223	8억1000만	3억5000만	상/다세대	
안산동	362/893	41억4000만	26억5000만	금융·의료·학원	
문암동	1138/1959	111억1000만	62억2000만	연립	
누운동	40/34	4억9000만	2억4000만	수원초고급·현대리본	
정안동	83	7억5000만	4억2000만	금융·의료·학원	
정안동	7A	5000만	4400만	현대·국립·기술	
우산동	41	2억3000만	1억4000만	현대·국립·기술	
우산동	39	4억3000만	1억	현대·국립·기술	
정안동	32	5억1000만	1억9000만	아파트·국립·기술	
문암동	200	20억3000만	8억9000만	현대·국립·기술	
송정동	2	1억	4400만	광안리·기술	
신정동	호반차	15층	34	1억8000만	1억1000만
월계동	천안공호	9층	34	1억1000만	7700만
진월동	중림	4층	28	1억9000만	7350만
봉선동	리안하이츠	7층	22	5500만	3850만
산남동	그린	18층	24	8700만	4690만
대곡동	삼익	8층	32	8000만	5600만
문흥동	중흥	7층	32	9000만	6300만
3당동	리안동산	7층	32	8800만	6880만
금호동	해솔리더	2층	31	9100만	6370만
두암동	그린	18층	33	1억1000만	7700만
학동	대지	625	7억2000만	5억	금융·의료·학원
월봉동	대지	203	7억3000만	3억3000만	현대·국립·기술
동림동	대지	248	3억8000만	2억5000만	상/다세대
변덕동	전	558	1억1000만	8100만	마곡마을내
죽동	전	591	3억7000만	2억8000만	금융·의료·학원
다시면	전	783	2900만	2900만	다세대·연립
봉현동	담	1058	4500만	3100만	두암마을내
금천동	과수원	2600	9억1000만	8억4000만	금천사우사2호
대곡동	과수원	1362	8200만	4600만	가톨릭마을내
영광동	담	822	2700만	1500만	정안마을내
곡성동	439/222	9400만	4230만	도시·3차선도로	
문산동	382/226	1억5000만	1억5000만	주변·상/다세대·도로	
문경동	738/410	29억6500만	1억1000만	축사·도로	
무양동	720/283	1억1000만	7720만	우시·주말·4차선도로	
정안동	11.8	8000만	4480만	구영드림빌 4층	
차평동	47.4	3억3000만	1억9480만	로진타워파크 2층	
월산동	13.7	8800만	4820만	동강 8층	
차평동	8.8	5500만	3850만	수림 7층	
수기동	8.1	4300만	2400만	제일 13층	
문흥동	44.9	2억194000만	우동·수원·리본 2층		
산남동	25.8	1억4300만	8000만	그린빌리 4층	
정안동	154/2416	14억3000만	7억9000만	상/오계절	
우산동	727/1431	67억2000만	47억	지정주택(연립·단독)	
무산동	188/193	10억9000만	5억9000만	노년주택	
운암동	146/400	12억7000만	7억1000만	상/다세대	
울봉동	137/223	8억1000만	3억5000만	상/다세대	
안산동	362/893	41억4000만	26억5000만	금융·의료·학원	
문암동	1138/1959	111억1000만	62억2000만	연립	
누운동	40/34	4억9000만	2억4000만	수원초고급·현대리본	
정안동	83	7억5000만	4억2000만	금융·의료·학원	
정안동	7A	5000만	4400만	현대·국립·기술	
우산동	41	2억3000만	1억4000만	현대·국립·기술	
우산동	39	4억3000만	1억	현대·국립·기술	
정안동	32	5억1000만	1억9000만	아파트·국립·기술	
문암동	200	20억3000만	8억9000만	현대·국립·기술	
송정동	2	1억	4400만	광안리·기술	
신정동	호반차	15층	34	1억8000만	1억1000만
월계동	천안공호	9층	34	1억1000만	7700만
진월동	중림	4층	28	1억9000만	7350만
봉선동	리안하이츠	7층	22	5500만	3850만
산남동	그린	18층	24	8700만	4690만
대곡동	삼익	8층	32	8000만	5600만
문흥동	중흥	7층	32	9000만	6300만
3당동	리안동산	7층	32	8800만	6880만
금호동	해솔리더	2층	31	9100만	6370만
두암동	그린	18층	33	1억1000만	7700만

태양열 시스템으로 난방 및 온수 비용을 해결하세요~!!

해만 뜨면 무한으로 태양열 시스템으로 지금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없다면 태양열 연료비 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온수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주택 · 공장 · 호텔 · 목욕탕 · 유치원 · 교회 · 복지시설 등... • 미용실 · 식당 · 골프장 · 헬스클럽 등...

기름보일러 및 심야보일러 사용요금에 많이 나오는 업소 및 용량이 부족한 곳에 더욱더 **확실한 효률**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순간 온수기 가격으로 태양열을 이용해 보십시오.
* 순간온수기보다 5배 이상 긴 수명으로...
* 순간온수기보다 5배 이상 큰 용량의 태양열 온수기를 저렴